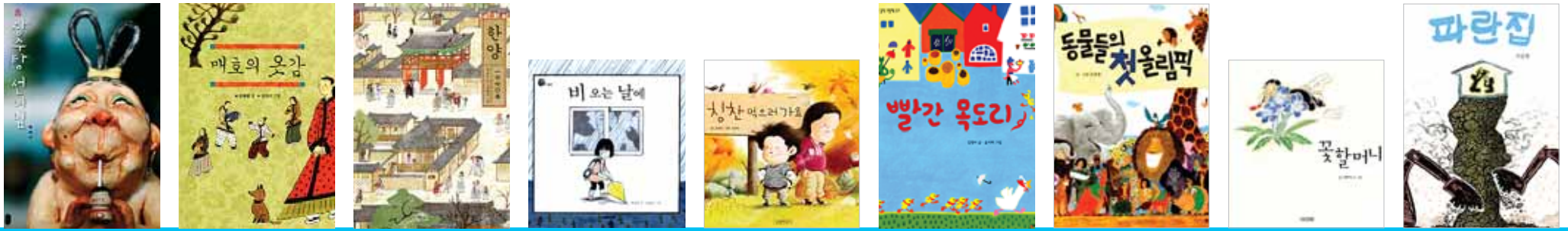


일상생활부터
역사속 이야기까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



그림책이 아이만 보는 책이라구요??

어른들에게도 인기... 유년시절, 부모가 되어, 노년까지 그림책은 치유의 힘

출판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활력과 희망을 주는 분야가 있다. 그림책의 약진이 그것이다. 다양한 소재와 기법, 주제를 갖춘 그림책의 출판이 불황에 허덕이는 출판계의 아이스크림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수탕 선녀님’(백희나 글·그림, 책읽는곰), ‘매호의 옷감’(김해원 글, 김진이 그림, 창비), ‘한양 1770년’(정승모 글, 강영지 그림, 보리), ‘비오는 날에’(최성욱 글, 김효은 그림, 파란자전거), ‘칭찬 먹으러 가요’(고대영 글, 김영진 그림, 길벗어린이), ‘빨간 목도리’(김영미 글, 윤지희 그림, 시공주니어), ‘동물들의 첫 올림픽’(문종훈 글·그림, 웅진주니어) 등..

인근 그림책은 작년에 출판돼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소재도 사물

과 일상생활에서부터 동물들의 이야기, 역사속의 감춰진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외에도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꽃 할머니’(권윤덕 글·그림, 사계절), 용산참사를 배경으로 다룬 ‘파란집’(이승현 글·그림, 보리)은 단순히 어린이용 도서라고 생각하기에는 내용의 폭과 깊이가 만만치 않다.

글과 그림이 맞물려 전달하는 의미의 풍성함뿐 아니라 이를 풀어내는 기법

도 문학성이 가미되어 있다.

이는 그림책은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라는 선입견을 무너뜨린다. 어릴 때 봤던 기억이나 아이들에게 사줬던 기억 때문에 그림책이 아이들만 읽는 도서라는 인식에 묶여 있을 뿐이다.

어린이책 시민연대활동가 변춘희씨는 “어릴 때 그림책을 봤던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된 후에도 그림책을 찾는다”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어른 자신도 함께 읽어야 할 책

이라는 인식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이어 “요즘엔 지역도서관에도 그림책이 연령대별로 많이 비치돼 있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어린이책이라는 선입견만 버린다면 또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며 그림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야기로 할 수 없는 것이 잠재한다. 그림이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

다. 그림으로 재현된 이미지는 많은 이야기를 내포한다. 그림책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림과 이야기의 결합은 상상력이라는 날개를 달고 무한대로 확장된다.

사계절 출판사 김진씨는 “예전에는 전집 위주로 나왔지만 지금은 하나의 주제를 형상화한 단행본으로 출간되기 때문에 골라 읽는 재미 외에도 개개의 책이 던지는 생각거리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 말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동화작가 한은경씨도 “그림책은 팩트 이상의 것을 주기 때문에 매력에 있는 것 같다. 더욱이 초등학교 이상은 학습 부담이 있지만 유아 쪽은 그런 점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 그림책을 찾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그림책에 대한 선호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는 그림책은 인생의 단계에서 세 번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읽어줄 때,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읽어줄 때, 인생의 질곡을 거친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것이다. 거기에는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꺼내 읽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춘설현 아집도’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잠시 휴관에 들어갔던 의재미술관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처럼 따뜻한 전시를 준비했다. 의재미술관 휴관은 무등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큰 아쉬움이였다.

의재미술관은 오는 6월23일까지 미술관 1·2 전시실에서 2013년 소장품 기획전 ‘춘설현 아집도(春雪軒 雅集圖)’를 연다.

우리나라 남종화 전통의 맥을 형성한 의재 허백련과 그의 정신을 이어온 제자들의 화조도, 사군자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의재미술관, 따뜻한 봄맞이

리모델링 마치고 6월23일까지 ‘춘설현 아집도’전

‘아집도’는 중국 북송시대 고사 인물화의 화제(畫題)에서 비롯됐다. 당시 명성 있는 문인묵객들은 서원 한자리에 모여 풍류를 즐기면서 풍경이나 인물을 그림으로 남겼다.

‘춘설현 아집도’는 의재와 그의 제자들이 춘설현에 모여 각자의 풍

취를 화조도로 남겨 낙관한 그림이다. 4m44cm에 달하는 두루마리 형식의 이 그림은 근원 구절우가 화제를 썼으며 의재와 그의 제자 등 16명의 낙관이 찍혀있다.

제1전시실에는 의재의 삶과 예술에 기반을 두고 전통 서화계승을 위해 지난 1938년 만들어진 연진회

출신 제자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제2전시실에는 의재의 대담한 필치와 기개가 담긴 수묵담채 20여 점이 전시돼 있다.

특히 오방 최홍종(1880~1966) 목사의 회갑을 기념해 의재가 선물한 ‘천보구여도(天寶九如圖)’가 함께 전시된다.

이 작품은 오방의 손자이자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이며 최합씨가 소장하다가 의재미술관에 기증했다.

문의 062-222-304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무등지성·충장서림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2부

“젊은 청춘들이여 사랑하라”

명혜영 교수, ‘베드타임아이스’ 작가·작품 이야기... 3월23일 세번째강좌

인간에게 사랑은 영원한 주제다. 수많은 문학작품과 예술의 소재로 사랑이 다루어졌던 것은 주제가 지닌 보편성 때문이다.

광주 충장서림과 전남대 비정규교수 학술모임 ‘무등지성’이 진행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두번째 강의가 지난 23일 오후 3시 충장서림 3층 충장갤러리에서 열렸다.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강의에서 명혜영 교수는 ‘육체라는 필터를 통해 언어를 획득하다-아마도 에이미의 ‘베드타임아이스’로 보는 사랑’을 주제로 인문학을 이야기했다.

명 교수는 “요즘 대학가는 청춘 특유의 활기와 낭만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라는 이른바 ‘3포세대’에게 사랑은 사치로 인식된다”며 “여타 이유를 불문하고 젊은이들에게 연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사랑(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며 주제 의미를 부여했다.

강의는 참석자들이 적어 낸 ‘사랑’에 관한 정의를 읽는 것을 시작으로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한·일 연애



지난 23일 오후 3시 충장서림 3층 충장갤러리에서 열린 ‘찾아가는 인문학’ 두 번째 강의 모습. <무등지성 제공>

사의 개괄적 소개, 텍스트 ‘베드타임아이스’의 작가와 작품 소개, 청중과의 질의 응답순서로 이어졌다.

‘베드타임아이스(1985년 작)’는 흑인병사와 일본 여자와의 사랑을 다룬 소설로 발간 당시 센세이션을 낳았으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강의는 중간중간 사랑과 관련한 음악이 곁들여져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주부 송미경(50)씨는 “말을 듣는 부모 입장으로서 무분별한 연애에 반대

한다. 강의가 다소 충격적이지만 사랑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있다. 오늘 강좌가 성과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3월23일 열리는 세 번째 강좌에서는 이현주 교수가 ‘소포클레스 비극의 이해-법과 자유 의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강의한다. 6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료 무료. 문의 062-511-0903. /박성천기자 skypark@

‘우리가락 우리춤 배우기’

전남도립국악단 수강생 모집

전남도립국악단이 2013년 1기 국악강좌 ‘우리가락 우리춤 배우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악교실은 한국무용, 판소리, 민요, 장구, 대금·단소 등 5개 분야로 운영되며, 정원은 강좌별로 20~30명이다.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도립국악단 연습실에서 열리는 국악강좌 강사로는 안지선(한국무용), 박춘맹(판소리), 김옥란(민요), 송병관

(장구), 김대성(대금·단소)씨 등 도립국악단원이 직접 나선다.

교육기간은 3개월이며 매주 월요일 주1회(90분) 운영한다. 수강료는 3개월에 6만원. 문의 061-37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정품만 취급합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